5·31 지방선거 우리·민주당 광주·전남 공천자 중간 분석

광역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단체장 '현직 프리미엄'…1곳 빼고 모두 공천
"여론조사 후보 결정 방식 신인 진입 막아"

■ 열린우리당 광역의원 후보 〈4.12일 현재〉

지역	선거구	이 름
광주 북구	3선거구	송태종
광주 동구	2선거구	주환성
고흥군	2선거구	유지홍
곡성군	1선거구	조심래
	2선거구	김삼흐
광양시	1선거구	박희원
	2선거구	김종호
나주시	1선거구	나성식
담양군	2선거구	구삼규
무안군	1선거구	박석면
	2선거구	박인배
순천시	1선거구	박상영
	2선거구	박웅수
여수시	1선거구	여인옥
	2선거구	김점유
	3선거구	심서수
영광군	1선거구	조영기
영암군	1선거구	김종렬
장성군	1선거구	조영우
장흥군	1선거구	안명규
	2선거구	이승희
진도군	1선거구	차남현
함평군	2선거구	정문호

■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

광 주	동 구	1	시인봉
		2	손재홍
	서 구	1	송재선
		2	김동식
		3	
		4	김월출
	남 구	1	김선문
		2	나종천
	북 구	1	진선기
		2	김후진
		3	김순례
		4	조호권
		5	이철원
	광산구	1	강박원
		2	유재신
		3	이정남
전 남	고흥군	1	이일형
		2	신윤식
	강진군	1	황호용
		2	이종헌
	곡성군	1	류근기
		2	정환대
	광양시	1	남기호
		2	김재루
	구례군	1	서정용
		2	박민환
	나주시	1	이기형
		2	김상봉
	담양군	1	강종문
		2	송범근
	목포시	1	황정호
		2	이호균
	무안군	1	김석원
		2	김철주
	보성군	1	황병순
		2	이탁우
	순천시	1	박홍수
		2	오하근
	신안군	1	임흥빈
		2	김종호
	여수시	1	김종철
		2	송대수
		3	서일용
		4	최종선
	영광군	1	이동권
		2	김영철
	영암군	1	강우원
		2	
	완도군	1	이부남
		2	송주호
	장성군	1	윤시석
		2	설창옥
	장흥군	1	김창남
		2	이민우
	진도군	1	장일
		2	이명윤
	함평군		김성호
	해남군	1	김석원
		2	김병옥
	화순군	1	구충곤
		2	홍이식

5·31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각 정당의 공천자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 단체장은 경선에 나선 현역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대로 후보로 확정된 반면, 광역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부분 공천에 반영돼 현직이 대부분 그대로 진출한 반면, 광역의원들은 단체장에 도전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상당수가 탈락해 판도 변화가 심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시·도당에 따르면 12일 현재 민주당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62명의 지역구 광역의원 가운데 영암군수와 광주 서구3·영암2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보 공천을 마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기초단체장 9곳과 광역의원 22곳의 공천자를 확정해 3분의 1정도 진척됐다.

◇단체장 현직 '독식'=현재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열린우리당 8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6명 등이다. 이 가운데 무소속과 3선 연임 제한 대상자(장성·영광), 불출마자(영암), 경선에서 제외되거나 과정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은 단체장(광주 광산·신안), 구속자(순천), 경선이 진행중인 곳(광주 서구), 광역단체장 출마자(북구)를 제외하면 14개 시·군·구 단체장이 남는다.

현재 재심이 진행중이지만 현역 단체장 중 경선에 탈락한 사람은 김충석 여수시장이 유일하다. 대부분 여론조사로 실시된 이번 후보 공천은 결과적으로 현역 단체장이 독차지한 셈이 됐다.

반면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은 두터웠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 신인들은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남 A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B씨는 "4년 동안 군정을 명분으로 지역 곳곳을 누빈 현역 단체장을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면에서 따라 잡을 수가 없다"며 "여론조사 방식이 결과적으로 현직을 위한 공천 방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광역의원 대폭 물갈이=70명의 광주시의원(19명)과 전남도의원(51명)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한 62명은 모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시의원 출신으로 두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은 7명, 전남도의원 출신은 20명으로 절반 이상이 물갈이된 것이다.

현직들의 교체가 심한 가장 큰 원인은 상당수가 단체장 경선에 출마해 공천을 받거나 탈락한 탓이다. 광역의원 그대로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례는 전남 3명, 광주 2명 등 5명이었다. 당내 사전 교통정리로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열린우리당 기초단체장 후보 〈4.12일 현재〉

지역		이름	직업
광주	동 구	임 택	전 동구의원
	북 구	이형석	전 광주시의원
	광산구	이상갑	변호사
전남	고흥군	진종근	고흥군수
	곡성군	고현석	곡성군수
	담양군	최형식	담양군수
	무안군	서삼석	무안군수
	신안군	김수용	전 국회의장비서관
	완도군	김종식	완도군수

■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광주	동구	유태명	동구청장
	서구	전주언	전 광주시기획관리실장
	남구	황일봉	남구청장
	북구	송광운	전 전남도행정부지사
	광산구	전갑길	전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	박병종	전 전남도의원
	강진군	황주홍	강진군수
	곡성군	허기하	전 전남도의원
	광양시	이성웅	광양시장
	구례군	전경태	구례군수
	나주시	김대동	전 나주시장
	담양군	이정섭	전 담양군사회복지과장
	목포시	정종득	목포시장
	무안군	나상옥	전 축협조합장
	보성군	정종해	전 기획예산처부이사관
	순천시	노관규	변호사
	신안군	김청수	우리소금살리기대표
	여수시	오현섭	전 전남도정무부지사
	영광군	정기호	전 전남도의원
	완도군	박현호	전 완도부군수
	장성군	이병직	전 전남도의원
	장흥군	김 성	전 전남도의원
	진도군	김경부	진도군수
	함평군	안병호	함평축협조합장
	해남군	박희현	해남군수
	화순군	전형준	다산건설대표

김재록씨 로비 리스트 확보

검찰 경제부처 명단 적힌 장부 찾아내…수사 급물살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김씨의 로비 대상자 명단이 적힌 리스트를 확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재록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인수를 청탁한 업체에서 전달받은 로비 대상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최근 찾아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신동아화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던 스칼라스투자평가원 원장 정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로비 보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김씨가 로비를 시도해야 할 경제부처 고위관료 명단과 함께 관료 개개인별 로비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보고서에 적힌 경제부처 고위관료들과 실제로 접촉해 부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김씨를 최근 잇따라 검찰청사로 데려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과 만나 불법 로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회장을 맡았던 투자자문회사 인베스투스글로벌 법인과 김 본인 계좌 등에서 나간 돈이 로비리스트에 명시된 인사들의 계좌로 유입됐는지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관료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해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재록씨가 현대차의 정·관계 로비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씨와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을 매일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현대차 자금담당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정·관계 로비내역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MK부자 소환 앞두고 '경영권 승계' 탈법 캐기

검찰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 소환을 앞둔 검찰이 11일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의 물줄기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쪽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차 계열사인 본텍(옛 기아전자)과 위아(옛 기아중공업)의 회계 감사를 맡고 있고, 이들 회사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거쳐 지분구조가 바뀌면서 경영권 승계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지분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서 검찰이 삼일회계법인에서 압수한 자료들은 이들 회사 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자료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본텍=본텍의 지분구조는 1999년 12월 현대 CRC인 윈앤윈21과 씨앤씨캐피탈 소유의 '코미트 M-A펀드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36.05%씩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윈앤윈21과 씨앤씨캐피탈은 모두 이달 4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CRC들이다. 본텍은 2001년 1월 총 주식 200만주에 대해 '구주 200대 신주 1'의 비율로 무상 감자를 실시, 납입자본 100억원 규모의 회사를 5천만원짜리 규모로 만들어 99억5천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했다. 기업이 이같은 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기 편하게 몸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윈앤윈21과 씨앤씨캐피탈이 100억원이 있어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5천만원만 있어도 인수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시켰다는 얘기다.

기업 규모가 작아진 뒤 본텍의 지분구조는 기아차 39%, 글로비스 30%, 정의선 기아차 사장 30%로 변했다. 당시 글로비스 지분구조가 정몽구 회장 35.15%, 정의선 사장 39.85%였던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본텍은 정의선 사장 손에 넘어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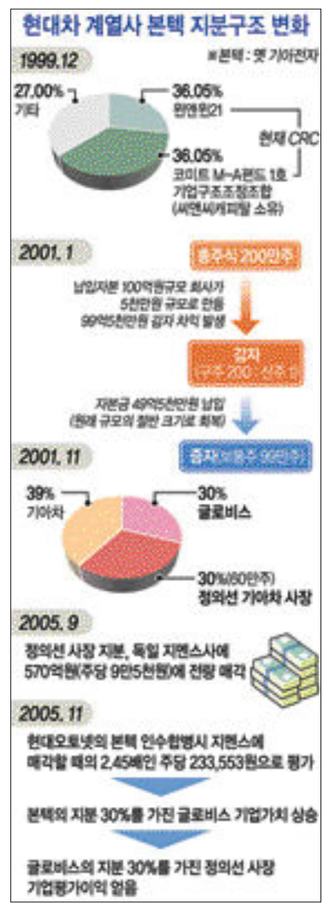
검찰은 이같은 본텍의 감자 및 증자 과정을 통해 정의선 사장이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 실무자들이 실시한 기업평가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위아=위아는 기아중공업 시절인 1998년 7월 악성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다 창원지법에서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화의인가를 받았다. 기아차가 대주주였던 이 회사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1999년 10월 윈앤윈21에 46.6%, 한국프랜지공업에 44.0%의 지분이 넘겨졌고 윈앤윈21의 지분은 큐캐피탈파트너스에 전량 매각됐다.

윈앤윈21과 큐캐피탈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한국프랜지공업의 대주주는 정몽구 회장의 고모부인 김영주 명예회장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01년 12월 위아 주식을 45.3%씩 총 90.6%를 인수해서 최대주주가 되는데 당시 연간 당기순이익 611억원을 내던 위아의 주식 694만주를 주당 100원, 총액 기준 7억원도 안되는 돈으로 인수해 의혹이 일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인수경위는 모른다"면서 "자산부채인수방식으로 위아 지분을 확보해 지분을 싸게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